

나의 제언

‘한글학회’의 나아갈 길

- 창립 100돌을 맞아 -

인문대학 국문학과 명예교수 고 영 근

1981년 12월 한글학회 창립 60돌기념 도서전시회에서 『한글모 죽보기』란 희한한 책이 전시된 일이 있었다. 당시 전시회를 참관하였던 나는 위의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몰았으나 당시 이사장이셨던 허용 선생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나는 책을 보자마자 글씨가 눈에 익어 자세히 들여다보니 책의 대부분이 주시경 선생의 충실한 제자였던 ‘李奎榮’ 선생의 필체였다. 바로 그 전 해 당시 고려대학교 교수이셨던 김민수 선생이 『韓國學報』 19호에 「李奎榮의 文法研究」라는 논문을 발표한 일이 있어 그 편자가 누구인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 책은 원래 육당문고 관리인이었던 윤재영 선생이 간수해 있다가 당시 한글학회 사무국장이셨던 박대희 선생의 손으로 넘어와서 전시회에 얼굴을 내밀게 된 것이다. 나의 말을 전해들은 김민수 선생도 바로 현장에 오셔서 편자가 이규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실이 중앙일보 지상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한글모 죽보기』에서 ‘한글모’는 ‘朝鮮言文會’란 뜻이고 ‘죽보기’는 ‘一覽’이라는 뜻이다.

나는 얼마 뒤 앞의 박대희 선생의 배려로 복사본을 얻어 『한글모 죽보기』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우선 국어학회 공동연구회에서 구두로 발표하고 『韓國學報』 30(1983)에 논문 형태로 발표한 바 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오늘의 한글학회는 그 연원을 1913년의 ‘한글모’(조선어문화)로, 궁극적으로는 1908년의 ‘국어연구학회’로 올려 잡아야 하며 이는 오늘의 한글학회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소견을 붙인 바 있다. 당시의 본인의 견해가 반영되었는지는 몰라도 1987년부터 한글학회의 창립 연대를 1908년 8월 31일로 잡아 행사를 치르고 있어서 나로서는 감개무량한 바가 없지 않다. 올해를 한글학회 창립 100돌로 기념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이 『한글모 죽보기』의 출현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밝혀 두는 바이다.

조선어학회 기관지 『한글』 창간호(1932)의 ‘本會重要日誌’를 보면 당시 개명한 ‘조선어학회’의 유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조선말과 글의 과학적 연구와 통일과 보급과의 운동은 고(故) 주시경 선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서력 1897년에 ‘國文同式會’가 조직된 후로 연구회와 강습소와 강연회 등 여러 가지 조직으로 활동하여

오다가 그때 몰리어 오는 풍조에 최후로 1915년에는 ‘조선말글모’(朝鮮語文會)도 부득이 해산함에 이르렀다. 그 뒤에 7년 동안은 아무 형식적 조직은 없었으나 이 운동의 목숨만은 끊임없이 이어 온 것이다. 그러다가 1921년 12월에야 다시 ‘朝鮮語研究會’라는 새 조직이 생기어, 이 운동의 중추가 되다. 작년 1월 총회에는 회명을 고쳐 ‘朝鮮語學會’라 하였다. 본회의 지난 40 동안의 긴 역사를…… (현대 맞춤법으로 고쳐 적음)

이곳의 ‘조선말글모’는 ‘한글모’의 한 이칭(異稱)임에 틀림없다. 위의 일지는 국문동식회로부터 시작하여 한글모와 조선어연구회를 거쳐 조선어학회에 이르기까지의 발자취를 더듬었다.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구회’는 바로 1908년에 창립된 ‘國語研究學會’를, ‘강습소’는 ‘夏期國語講習所’, ‘朝鮮語講習院’(한글배곧) 등을 가리킨다. 1908년의 국어연구학회와 1913년의 ‘한글모’의 창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글모 죽보기』와 같은 실증 자료를 보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국문동식회는 학회라기보다 독립신문사 안에 설치된 주시경 선생 중심의 철자법 연구 친목단체였다. 그러나 국어연구학회는 2차에 걸친 하기국어강습소의 졸업생을 규합(糾合)하여 ‘國語를 研究할 目的으로’와 같이 창립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회장을 선출하는 등 학회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이 땅 최초의 국어연구단체라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1913년의 ‘한글모’(朝鮮言文會)는 ‘朝鮮言文을 實行하’는 데 창립목표를 두었다. 이곳의 ‘실행’은 우리말과 우리글을 수호·발전시키는 실천적 방면의 연구와 관련되지 않나 한다. 1921년의 조선어 연구회는 ‘朝鮮語의 法理를 研究하’는 데 목표를 두고 창립되었으며 조선언문회 보다는 오히려 국어연구학회의 목표와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1921년 이후의 학회의 활동을 보면 우리말 연구보다는 철자법 등 민족어문의 표준화와 관련된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다. 1932년에 개명된 ‘朝鮮語學會’에 와서야 비로소 학회의 목표가 올바르게 정립되었다. 조선어학회는 ‘朝鮮語文의 研究와 統一’을 목표로 삼았다. 국어연구학회와 조선언문회의 창립 취지를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어문을 연구하여 정리와 통일, 곧 표준화를 수행한다는 의지가 분명히 표백(表白)되어 있다.

실제로 조선어 연구회는 1924년 2월에는 훈민정음 창제 8주갑 행사를 치렀고 1926년 9월, 훈민정음 반포 8주갑에 즈음하여 ‘가갸날’(뒤에 ‘한글날’)을 기념하여 오늘날 ‘한글날’의 연원(淵源)을 이루었으며 1929년을 전후하여서는 조선총독부의 언문철자법을 형태음소적인 것으로 개정하도록 투쟁하는가 하면 조선어 연구회를 거점으로 삼아 한글맞춤법을 제정하는 쾌거(快舉)를 이루었다. 이어 표준말을 사정하고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족 숙망의 『조선어 대사전』의 편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사전이 완성될 무렵인 1942년 10월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짐으로써 회원들은 옥고(獄苦)를 겪었으며 그 중에는 옥중 고훈(孤魂)이 된 분도 계셨다. 해방 후 조선어학회는 수년간 폐간되었던 학회지 『한글』을 복간함으로써 잃었던 민족어문을 되찾는 일에 진력(盡力)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어학회에 맞서 민족어문의 표준화운동을 벌리던

단체로 ‘朝鮮語學硏究會’가 창립되어 그 나름의 활동을 많이 하였지만 조선어학회만큼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이미 해방 전에 해체되다시피 하였다.

한글학회는 처음부터 해석학적 언어철학을 등에 업고 우리말과 우리글의 정리와 그 보급에 역점을 두고 창립되었다. 해석학적 언어철학이란 언어를 언어사용 주체와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관념론에 입각한 언어연구 방법론이다. 해방 후 정부가 수립되자 학회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는 여망(興望)에 따라 1949년 10월에 ‘한글학회, 국어학회, 국어연구회, 한글갈 모임, 대한국어학회, 한국어학회, 대한어학회’ 등의 후보를 놓고 토론을 거듭한 결과, ‘한글학회’가 최종 결정되어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다. ‘한글학회’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한국문자학회’란 뜻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글학회 이전에도 이름을 세 번이나 바꾸었다. 해방 후 하나밖에 없던 어문연구단체가 6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백에 이르고 있으며 국어 관계 학회만 해도 현재 수십을 헤아린다.

오늘날 지식인 사이에서도 ‘한글’을 문자보다는 우리말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다. 이러한 잘못은 ‘朝鮮言文’을 의미하는 ‘한글’의 태생에 그 씨앗이 배태되어 있었다. ‘글’이 ‘言文’에 대응되니 자연히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다. 나는 오래 전에 작고한 어느 국문학자로부터 세종대왕이 ‘모국어’인 ‘한글’을 창제하였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으며 얼마 전 어느 법학 교수는 신라 시대의 한글이 현대의 한글과 얼마나 다르냐고 묻는 것을 듣고 실소(失笑)를 금치 못한 일이 있다. 이런 오용(誤用)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도 ‘한글’을 머리에 얹은 ‘한글학회’란 말은 이제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반 사람에게 한글학회의 ‘한글’이 우리말로 이해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글학회의 연례행사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이다. 국어연구학회와 조선어문학회, 조선어연구회와 조선어학회의 창립정신과 그 발자취를 보더라도 ‘국어학 학술대회’보다는 ‘민족어학 학술대회’라 부르는 것이 어울려 보이고 그것이 진부하게 느껴진다면 더 피부에 다가오는 ‘겨레말 연구 학술발표대회’를 택할 수 있다. ‘국어학’이라고 하면 우리말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연상시킬 가능성이 많다. 이 상태대로 나아가면 한글학회는 ‘국어학회, 한국어학회’ 등의 어문단체와 조금도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연구방향도 해석학적 언어철학과 관련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학회의 이름도 ‘겨레말 학회’와 같이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의 학회는 우선 관념론에 입각한 민족어 연구를 선도(先導)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극도로 분화된 남북의 언어문화를 통합하는 메타이론을 제공할 수 있다. 2005년부터 9개년 계획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편찬하고 있는 ‘겨레말 큰 사전’에서 ‘겨레말’이 선택된 것이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2008. 7. 17)

[붙임 위의 글은 2008년 한글학회 100주년을 기념을 맞아 『한글새소식』에 투고하였으나 학회의 사정상 게재할 수 없다고 하여 보류된 것임을 밝혀 둔다.